전원생활

2층서 보는 월출산 "한폭의 동양화 같지요"

■ 영암군 서호면 최영열·장영자씨 집

영암읍내에서 독천방향으로 지방도 819호를 따라 30여분을 달리면 오른쪽에 서호면 몽해마을 표지판이 나온다. 그 길을 따라 5분 정도 더 들어가면 아담한 시골마을 중앙에 우뚝 서 있는 고풍스런 2층 벽돌집이 눈에 들어온다.

지난해 12월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온 최영열(62)·장영자(62)씨 부부가 황금빛 노년을 보내고 있는 보금자리다.

최씨 부부의 집은 여느 전원주택과 달리 마을 중앙에 자리잡고 있지만, 주변 경관은 그 어느 곳보다도 뛰어나다.

집 앞으로는 웅장한 월출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뒷 마당으로 가면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2층에서 감상하는 월출산은 한폭의 명화를 떠올리게 한다.

벽돌로 지어진 최씨 부부의 2층 집은 대지 480평에 건평 55평(1층 36평, 2층 19평)으로, 평당 30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갔고 땅은 평당 7만원에 구입했다. 건축기간은 4개월이 소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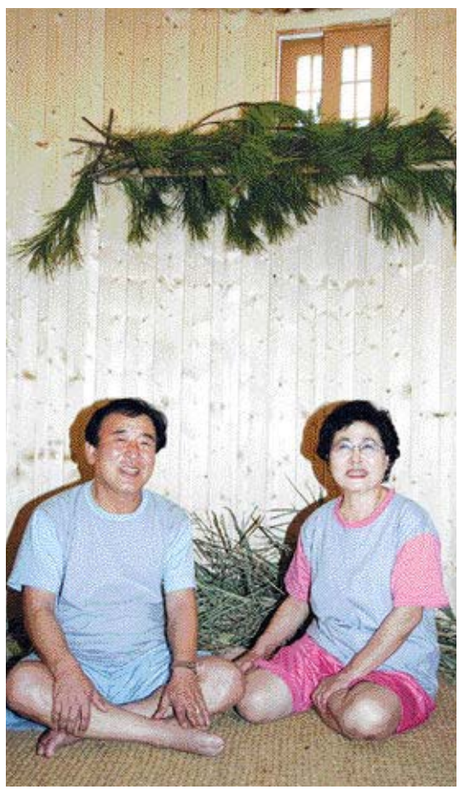
1층은 큰 방 2개와 욕실 2개, 거실, 주방, 찜질방으로 꾸며져 있고, 2층에는 방 2개와 욕실, 베란다가 자리잡고 있다. 1남 2녀를 모두 출가시킨 최씨 부부는 15명이나 되는 자녀 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넓은 2층집을 지었다고 한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한옥 양식으로 꾸민 집 내부와 찜질방. 최씨는 양옥집의 딱딱한 양식을 탈피하고자 1층 천장을 육송을 덧댄 'ㅅ' 자형 구조로 꾸며 한옥의 멋 스러움을 한껏 살렸다.

최씨는 "겉과 내부를 모두 서양식으로 짓다보니 너무 삭막한 느낌이 들어 내부는 한옥양식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면서 "집안에 있으면 전통 가옥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다"고 말했다.

손자·손녀들 모임 생각해 집 넓게 지어
내부 재료 육송 등 사용 한옥 멋 살려
거실 전통 소나무 찜질방 주민에 인기

최영열·장영자씨 부부가 집 구경을 온 마을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집앞에 월출산이 자리잡고 있어 2층에서 바라보는 월출산은 한폭의 명화를 연상시킨다.



최영열씨 부부가 거실 한 켠에 설치된 전통 찜질방에서 찜질을 즐기고 있다.

최씨 부부의 또 다른 야심작은 1층 거실 한켠에 마련한 2평 규모의 전통 소나무 찜질방이다.

700만원의 설치비가 들어간 찜질방은 10여명이 둘러앉아 전통 찜질을 즐길 수 있는 데 마을 주민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최씨 집의 소나무 찜질방은 여느 찜질방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기나 가스, 기름 대신 소나무 등을 직접 태워 가열하기 때문에 찜질 후 피부에는 윤기가 돌고 머리는 상쾌해진다는 게 최씨의 설명이다.

찜질방 바닥의 두께가 50cm가 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기 위해선 8시간 동안 장작불을 지펴야 하고, 온기가 24시간동안 지속된다. 최씨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손님들의 찜질방 방문을 대비해 20만원을 들여 찜질복 20벌도 구입했다.

"고향 사람들과 찜질도 함께하고, 여유있는 전원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는 최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지난 54년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부모와도 헤어지게 된 최씨는 고교 졸업때까지 목포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했고, 그곳에서 아내 장씨를 만났다.

최씨는 이후 섬유공장 등을 전전하며 힘든 젊은 시절을 보낸 끝에 서울 청담동에 130평 규모의 보석가게와 80평 규모 웨딩숍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

최씨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자, 지병인 당뇨병도 고칠 겸 귀향을 결심하고 모든 사업을 자식들에게 맡긴 뒤 이곳에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다.

최씨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아내와 함께 고향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며 "지병인 당뇨병도 많이 좋아졌고, 아내도 만족스러워 한다"며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만족해 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구고사·고인돌 등 문화유적 즐비 … '달마지 쌀' 특산품

■ 서호면 몽해마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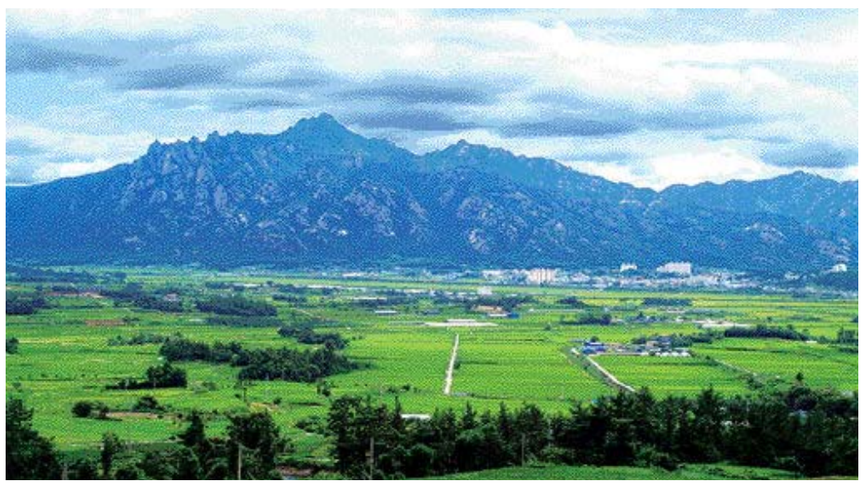
영암군 서호면에 위치한 몽해(夢海)마을은 본래 '굼바다', '굼바대', '꿈바다' 등으로 불렸다. 지난 1914년 송호리, 아천리, 복다회리와 곤이시(학산)면의 신소정 등 일부 지역이 병합돼 몽해리로 바뀌었다.

이 곳이 '굼바다'로 불리게 된 것은 조선 인조때 영암 출신 '명장'인 김완 장군(1577~1635년)의 어머니가 영암만 바닷물이 치마폭으로 몰려드는 꿈을 꾸고 장군을 낳았다는 이야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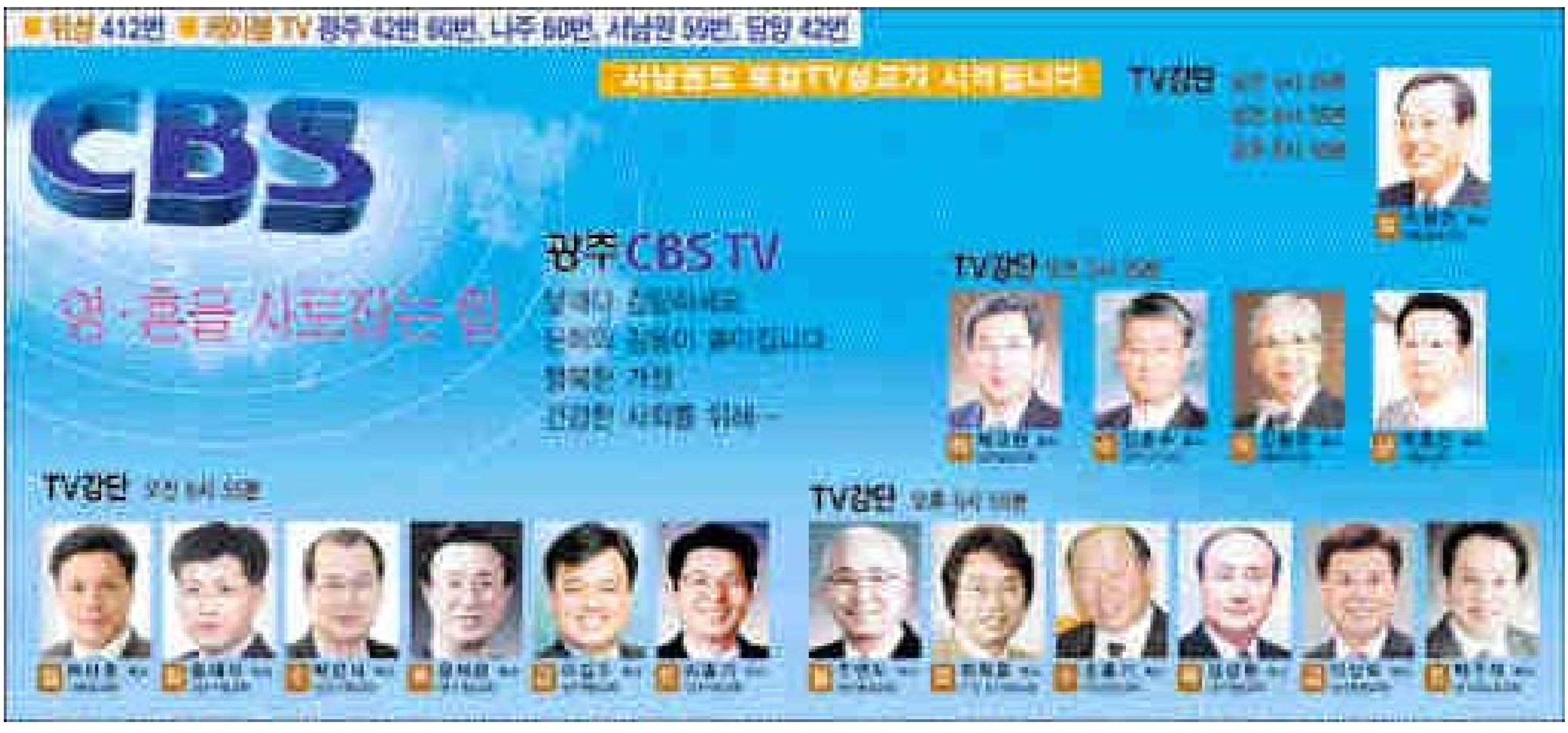
90년대 초만 해도 500여명에 이르던 몽해 마을 인구는 현재 36세대 78명(남 37, 여 41)으로 줄었다.

몽해마을이 속해 있는 소호면은 앞으로는 월출산을 마주하고 해발 392.9m의 은적산 능선이 병풍처럼 뒤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다.

특히 지난 2000년에 개설된 19.7km의 은적산 등산로는 경사가 완만하고 왕벚나무와 소사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등 자연 경관이 뛰어나 전국의 등산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관광지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구고사와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인 선사주거지, 고인돌 등 유서 깊은 문화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지역 특산물로는 토마토, 오이, 고추 등 시설원예 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비옥한 토질에서 생산되는 달마지 쌀은 지역 최고의 특산물로 꼽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